

주님의 수난 성지주일

제1독서: 이사 50,4 - 7

제2독서: 필립 2,6 - 11

복 음: 마르 14,1 - 15,47

술 정 이

“이 사람이야 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마르 15,39)

강 론

십자가 앞에서

현유복 신부 / 용머리 성당

사람들은 누구나 소록도에 가면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온다.

나병으로 섬에 격리되어 사는 주민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지만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병(病)을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한다. 병 때문에 이 섬에 왔고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참모습과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이 세상은 고해(苦海)라 불릴 만큼 누구나 예외 없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어떤 이들은 작은 고통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원망과 불편을 늘어놓는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나 되는 것 같아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대명사인 죽음까지도 그들에겐 하느님의 은혜요 축복일 수밖에 없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온갖 죄악의 더러움으로 썩어 죽어 가는 우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

하느님은 참으로 묘한 분이시다. 당신의 고통으로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셨다.

그 깊은 저주와 수치,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타는 우리의 죄악과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현장이다. 우리는 결코 그 곳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 리

썩은 사과

명절 때마다 궁금한 일이 하나 있어 쓸데 없는 걱정을 해 본다. 가게마다 작은 언덕을 이룬 저 과일상자들, 다 팔리지는 않을텐데 그 뒷처리를 어찌하나? 그런데 그것이 괜한 걱정만은 아니다. 상을 차리려고 상자를 뜯어보면 꼭 썩은 과일들이 있어 속을 상하게 한다.

국민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 아들이 사과문을 발표해서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어떤 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 때문에 그렇다. 명색이 사과문이라는데,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사과라함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빙>을 뜻한다. 그런데 ‘잘못이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잘못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내놓는 사과문임에 틀림없고, 자기의 처지를 밝히는 해명서라고나 해야 맞을 것 같다. 마치 썩은 사과를 한 알 받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

사과는 인류 역사하고 묘한 인연이 있나보다. 아담이 따먹은 과일 때문에 서양사람들은 남자의 목 울대뼈 부분을 아담의 사과라고 한다. 근년에 들어서 부정한 돈의 거래는 어째서 사과상자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하기사 썩은 사과가 풍기는 향기야 얼마나 그럴듯 한가!

지금은 사순절 막바지, “잘못이 있다면” 제탓입니다”하고 가슴을 치는 나인지 살펴보자. 甲

술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전주교구의 성인들 II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밀양 손씨 판서공파(判書公派)의 후손이며 일명 성운(成云)이라 불렸다. 아버지는 손달원(이냐시오)이고 어머니는 임 체칠리아이며, 1820년 부여군 충화면 지석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교리를 받고 영세했다.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강하고 품행이 바르고 점잖았던 그는 열여덟의 나이에 전교회장으로 임명받았다.

손선지는 김 루치아와 결혼하였으나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한재권 성인이 살던 진잠 장안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장남 순화를 낳았다. 그후 전라도 고산다리실(현재의 완주군 비봉면 천호동)로 이사하여 열마동안 지내다가 다시 소양면 대성동 신리골로 이사했다. 거기서 담배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그곳에서도 전교회장을 맡았다.

1866년 12월 5일, 가족들과 저녁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포졸들이 들이 닥쳐 가족들은 뒷문으로 피하고 손선지만 체포되었다.

영장은 심문하는데 늘 누구에게나 묻던 대로 천주학을 믿느냐, 천주교 성물과 책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배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손선지가 질문대로 따르지 않자 팔주리를 틀어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손선지는 자기 손으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1866년 12월 13일 사형날이 왔다. 손선지와 동료들은 형장에 끓어 않았다. 구경꾼들의 조롱이 빗발쳤다. 영장은 다시 배교하고 살겠는가, 국법대로 죽겠는가 물었다. 여섯 교우들이 이구동성으로 죽겠다고 대답하자 사형이 집행되었다. 군인들은 그들을 말뚝에 묶고 머리 밑에 나무토막을 받쳤다. 손선지는 맨 마지막 차례로 처형되었는데 휘꽝이의 칼이 얼굴로 빛나가자 고개를 들고 휘꽝이에게 단칼에 치지 못한다고 꾸짖었다. 드디어 두 번째 칼이 그의 목을 끊었다. 47세 장부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손선지는 1968년 10월 5일 시복되고, 1984년 5월 6일 시성되었다. 그의 무덤은 천호성지에 있다.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칼라종합화장품

향수·페션액세서리 전문점
Honinangwa 수료자 여행용 Set
무료증정

조 정 선(바오로)
전 속 자

☎ (0654) 446-6437(터미널 옆)

여성폐선
양 폐 르

이 현 정(카타리나)

전주백화점↔도청 민원실
(에스파이어 옆)

☎ 83 - 4235

연세기정의학과 의원
(통증클리닉·물리치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원장 : 전문의 이 장춘(요셉)

동서학동 교대 옆 무궁화주유소 사거리

☎ 232 - 3535~6

하느님과 나만의 시간

이정숙(루치아) / 호성동 성당

나는 성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돋기 위해 성서 묵상용 도서나 참고서를 사용하고 있다. 성서를 볼 때 해설을 함께 보니 성서 시대의 상황이나 배경,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애정 소설과 같은 재미와 추리 소설 같은 긴장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출애 4,10)’라는 모세의 말에서 대중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회의 진행 때마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도 말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느님께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출애 34,6)’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언제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항상 자비와 축복을 내리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트집을 잡으려면 끝이 없는 가난한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의 가족에게 주시는 평화와 건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저를 부르시어 봉사의 도구로 쓰시고, 저의 가족들이 자주 밖으로 나다니는 저를 이해하고 격려하게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처럼 성서를 읽는 시간은 하느님과 나, 둘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성서를 읽으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여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등 많은 묵상을 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다.

◆ 성서통독을 하시면서 느낀 체험을 보내 주십시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가톨릭센터 홍보과 ☎ (0652) 85 - 0041

잠깐

성삼일의 전례와 의미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재의 수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금육, 금식, 금주, 금연, 애굽, 희생, 봉사 등)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빠스카’축제를 준비해 왔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년 중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성주간을 맞이하여 성삼일의 전례와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성목요일 - 신품성사와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주교좌 성당에 모여 교구장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서품 때의 서약(정결과 순명)을 간증하며, 일년 동안 사용할 축성성유, 예비신자성유, 병자성유를 축성한다.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리는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새계명이 선포되며 당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세족례가 이어진다. 영성체 후 본감실을 비우고, 성체를 현양제대에 모신다. 그리고 제대를 벗기고, 십자가를 가리며 부활 전야 미사 전까지 주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생각하며 성체조배를 한다.

성금요일 - 예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날 교회가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이다. 이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다.

성토요일(부활성야) - 주께서 무덤을 여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심(빠스카)을 기억하는 거룩한 밤이다. 성토요일 밤의 전례는 불과 부활초를 축성하고 행렬을 한다. 이는 부활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기 위함이다. 말씀의 전례에서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구원의 은총을 기원하며 장엄하게 대영광송을 노래한다. 그리고 성세수 축성과 세례식 이후 모두가 촛불을 밝혀 들고, 새영세자와 함께 성세서약을 간증한다. 영성체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합,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부활의 기쁨을 살아간다.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교구장 주례 성삼일 전례일정

| | |
|-----------|-------------------------------|
| 성유축성미사 | 3월 27일(성목요일)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
| 주님의 만찬미사 | 3월 27일(성목요일) 오후 8시 인후동 성당 |
| 십자가의 길 기도 | 3월 28일(성금요일) 오후 3시 치명자산 |
| 주님의 수난예절 | 3월 28일(성금요일) 오후 8시 중앙 성당 |
| 부활성야미사 | 3월 29일(성토요일) 오후 10시 중앙 성당 |
| 부활대축일 미사 | 4월 27일(성토요일) 오전 10시30분 호성동 성당 |

1. 레지오 단원 교육: 3월 24일(월) 둔율동 성당
2. 은혜의 밤 철야기도: 3월 28일(금) 오후 11시 전동 성당
3. 기억할 사제: 3월 23일 이태규(요셉) 신부 28주기

요십이 (1231) 김병오



여사무원 구함

1. 자격: 컴퓨터 가능한 자
2.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서류접수: 30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4. 연락처: (0652) 221-3711
효자우전 천주교회

줄포공소 은인구함

공소 경당 신축에
뜻있는 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부안본당 사무실: (0683) 84-1333
상업은행 605-08-048581

활동중심의 통합교육
작은꿈이 커가는
미래어린이집

서신2지구 마천교 옆
홍 종 득(바오로)
이 경 신(데레사)
☎ 71-5330~1

효자이비인후과의원
(레이저·내시경수술)

가톨릭공체조합 지정병원
원장 김 우 태
육 인 희(세레나)
남전주 전화국 건너편
☎ 223-7112

신일클래스피아노학원

- 아마데우스클래스음악교育(유치부·초·중등부)
- 예·중·고·음대 입시반, 편입반
- 피아노, 현, 작곡, 입시상담
- 음악학 석사 김 태 민(바오로)
- 정 수 영(바울로)
- 현재) 전주대·예고·기독음대 출강중
- 삼천동 신일장변APT 상가1동
- ☎ 226-8585

이름이 바뀌었네!
바오로딸

성바오로딸 수도회 수녀들이
봉사하는 성바오로 서원은 바오
로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주 바오로딸: (0652) 252-3398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년 원 226-3487 사목회장 삼 성 택

◎성주간 예절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합시다.

- 모임 안내 : ①전례부, 편집부-교증미사 후
②레지오 아치에스 행사-후 2시
③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오늘 회비 납부일
④성심 부녀회-26일(수) 전 10시
- 사순절 현금 : 오늘 이웃돕기 2차 현금 있음
- 판공일정 : 24일(월)-광진구역, 25일(화)-장미구역
26일(수)-우일구역, 27일(목)-기타구역
- 성주간 예절 : 유인물 참조바람
- 부활맞이 대청소 : 25일(화) 전 10시
- 부활 성야미사 : 29일(토) 세례식-후 9시 30분
미사-후 10시 30분
- 부활 대축일 미사 : 30일(주일) 전 9시, 전 10시 30분, 후 7시
- 부활절 봉헌물 : ①사순절 신앙실천표 ②사순절 저금통
③성서통독표 ④가정 성서모임 수첩
- 나눔과 친교잔치 : 4월 5일(토)-6일(주일), 구역별 준비바람
- 전신자 피정 : 4월 26일(토)-27일(주일), 천호 괴정의 집
- 부술시설 신축현금 : 금주 납입자 18명, 소계 2,340,000원
- 금주 전례 : 해설 문승숙, 독서-양희찬(돈보스코) 부부
예물봉헌-노원규(토마)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문승숙, 독서-김희주(스테파노) 부부
예물봉헌-박해근(스테파노) 가정

□지난주 봉현금 : 1,574,680원 □교무금 : 1,441,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혼 택
F A X 74-9260 수 년 원 74-9262 사목회장 유준웅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낫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비 2,8)

- 오늘 : 사순공동 2차현금
- 금주 모임 : ①아치에스 행사-후 2시, 레지오 전단원 참석
②청년공동체 괴정-전 8시, 임실 냉천
- 주간 모임 : 엠마우스회-26일(수) 후 7시, 4회의실
- 차주 모임 : 방주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 성주간 전례 :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①주님의 만찬 성목요일-27일(목) 후 8시, 세례례
※ 불우이웃을 위한 특별현금, 성체조배(구역별 실시)
②주님의 수난 성금요일-28일(금) 후 8시(십자가의 길-후 7시 30분) ※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현금
③부활 성야 미사-28일(토) 후 8시(어린이, 학생미사 없음)
④부활 대축일-30일(일) 전 10시, 후 7시 30분(새벽미사 없음)
- 사순절 되지저금통과 성미를 반별로 모아 차주까지 봉헌바랍니다.
- 전입가정 환영 : 국경자(레지나) T.73-3377, 동아 A103/402
이성열(방지가) T.252-0995, 5구역 1반
권영안(요셉) T.77-3842, 동아A 108/604
민경님(마리아) T.222-7126, 10구역 1반
김형렬(바우로) T.72-6373, 동아A 107/1001
- 독서 : 금주(새벽)-①전집동(2) 김금례, 차주-①김문태 ②임순옥
(공식)-①이영주 ②최은순, 차주-①박경수 ②조옥순
- 미사 안내 : 금주-찬송하율을 모호Pr., 차주-하자 없으신 모호Pr.

□지난주 봉현금 : 1,411,270원 □교무금 : 4,024,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협 유 복
수 년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성서통독과 매일미사 참례를 통하여 주님의 수난에 동참합시다.
- 새 성전 신축위한 목주기도 봉헌: 소계-9,867단, 누계-347,720단
- 모임 : ①요셉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②사라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 성지 주일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현금
사순절동안 절제와 희생한 끝으로 현금 바람
- 성소후원을 위한 끌돼지 : 정성을 모아 살찌워옵니다.
- 첫 영성체 : 대상자(초등학교 3년이상)는 오늘까지 신청바람
- 2차 신축현금 : 전신자 빠짐없이 한마음으로 신입해 주십시오
- 본당 이전 : 오늘 공식미사 후 ※ 전신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저녁미사부터는 새성당에서 봉헌합니다.

- 성주간 전례
①성목요일: 성유축성 미사-중앙성당, 전 10시 30분, 주님의 만찬 미사
②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치명자산, 본당-후 3시, 수난예절-후 8시
③부활성야 미사-후 8시 ※ 초를 가지고 오십시오
④부활 대축일 미사-전 6시, 전 9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 금주 전례 : 해설-한영석, 독서-①오상준 ②안영이
- 차주 전례 : 해설-정희수, 독서-①황금석 ②이수자
- 청소 봉사 : 4구역 전체

□지난주 봉현금 : 964,750원 □교무금 : 877,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년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 금주 모임 : ①전 9시-꾸리아, 후 4시-아치에스
②낮미사 후-대전회, 성모회
③14제 등반대회-점심식사 후, 치명자산
※ 점심 판매-성전신축을 위한 식당 운영
※ 사순절 공동 2차현금 있음
- 음악 기초교실 : 매주 화요일 후 7시 30분
- 성주간 : ①성 목요일: 주의만찬 저녁미사-후 7시 30분
월야 성체조례-일정표 참조
②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후 3시
십자가의 경배 예절-후 7시 30분
③부활 안내: 성야미사-후 10시
대축일 미사-전 10시, 후 7시 30분
※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현금 있음
- 본당 가족 웰마운 : 31일(월)~4월 1일(화) 사무실 휴무
- 봉성체 : 3일(목)-사무실에 신청 바람
- 성시간 : 4일(금) 후 7시 30분
- 구역 미사 : 4일(금)-성원골드, 11일(금)-신일
- 신축현금 신입현황 : 266세대-5억 8천 6백 4십 3만원
- 청소 봉사 : 29일(토)-황금궁전Pr.
- 차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최정순, 저녁-정인자
- M.B.W. 현대복음선교 과정 : 4월 10일(목)~13일(일)
<주말과정> ※ 사무실에 문의 및 접수 바람

□지난주 봉현금 : 830,820원 □교무금 : 1,095,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년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완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금주 성서통독 : 갈라디아서
- 오늘은 주님의 수난 성지주일 : 사순공동 2차 현금
- 금주 모임: ①전례해설단 모임-25일(화) 후 8시②홍보분과 모임-25일(화) 후 8시③꾸리아-26일(수) 전 10시④사목회-30일(일) 10시 30분미사 후 2. 차주 모임: ①성체봉사자 모임-1일(화) 전 11시 ②구역봉사자 모임-2일(수) 전 10시 30분③성모기사회-5일(토) 전 10시 3. 합동 팔공성사: 24일(월) 후 7시부터
- 구역미사: 25일(화) 후 8시-쌍용 2단지 111동 408호
- 성삼일전례: ①성목요일: 만찬미사-후 8시②성금요일: 십자가의 길-후 3시, 수난예절-후 8시※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현금 있음③성토요일(29일): 부활성야성미사-후 10시※ 3시, 5시 미사없음 6. 부활 대축일미사: 30일(일) 전 9시, 10시 30분, 후 7시
- 사순데자리를 살피우고 긍식한 성미를 정성껏 봉헌합시다
- 축! 영세식: 29일(토) 후 5시※ 집중교리- 18일~28일
- 유아 영세: 29일(토) 후 3시 10. 본당환경미화를 위해 각 레지오 Pr. 별로 꽃모판을 1개씩 봉헌합시다. 11.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송정A 구역 12. 전입교우 환영: 한근자(제노베파)-호자 등 1인 569-8 T.226-9372, 김지선(율리안나)-쌍용A 105-107 T.223-4655, 한순덕(모니카)-삼천주공A 302-210 T.226-5809, 유복만(안드레이)-세계A 8-202 T.225-5863 13. 본당 발전현금: 신명재(요셉) 이십만, 오클라우디아수녀님 구십일만(영명축하금)

□지난주 봉현금 : 1,357,590원 □교무금 : 1,678,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년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원

- 성주간 예절: 주의만찬미사- 27일(목) 후 8시, 십자가의 길- 28일(금) 후 3시, 수난 예절- 28일(금) 후 8시, 전야 미사- 29일(토) 후 8시 2.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 전 9시, 전 10시 30분, 후 7시
- 제2차 신축현금 신입자 : 김종열 100만, 김진규 100만, 김호선 150만, 김화례 200만, 이형배 50만, 곽정연 50만, 이후상 200만, 홍옥자 100만, 김진호 150만, 이신자 300만, 이선홍 500만, 윤말년 100만, 박육업 100만, 이학규 200만, 임승동 200만, 양형섭 200만, 조세열 1,000만, 강진상 300만, 추금석 200만, 이수원(여) 100만, 변명숙 70만, 이한은 100만, 김정수 20만, 이우자 100만, 박동근 150만, 이영덕 50만, 김봉운 300만, 한수자 36만, 나귀준 200만, 한성현 100만, 정봉구 50만, 신희섭 100만, 이광근 300만, 박성순 100만, 김인원 100만, 김이화 100만, 박성숙 50만, 정영환 100만, 김경안 200만, 권명렬 20만, 익명 50만, 익명 200만, 익명 100만, 김용준 500만, 은종남 50만, 이원강 30만, 김복주 50만, 오원식 30만, 송재진 300만, 임점례 20만, 표근중 60만, 장현자 300만, 한정숙 300만, 김종순 50만, 서영님 20만, 백금형 100만, 익명 220만, 조석현 200만, 이분순 60만, 송하영 150만, 선봉순 200만, 익명 100만, 김정희 100만, 최경남 200만, 박점순 150만, 일성자 50만, 추도엽 100만, 우기도 300만, 진길순 50만, 이종표 250만, 소상섭 200만, 송완진 100만, 유형남 100만, 정정남 100만, 강기석 200만, 여래구 300만, 정화중 300만, 조형연 200만, 강대한 200만, 이성준 150만, 박승규 100만, 조재웅 100만, 김용길 50만, 김정숙 50만 ※ 소계: 1억 2천 9백 9십 6만원, 누계: 2억 9천 1백 4십 6만원